

도시재생사업, 강화군 전역으로 확대



(구)풍물시장



동광직물 한옥카페



용흥궁 공원



구신골센터

‘스토리 있는 이야기길’마을공동 수익 창출, 깨끗한 거리 조성

방치되었던 오래된 건축물을 특산물 판매장, 커뮤니티 공간, 농산품 및 작업장 등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마을 환경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을 통해 마을공동 수익을 창출하고 노인층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마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또한, 구 풍물시장 거리를 스토리 있는 이야기길로 조성하고자 강화인물사 스토리보드, 쌈지 쉼터 조성, 인도를 설치했다. 또한 강화 폐직물공장인 동광 직물을 매입하여 소창을 테마로 한 생활 문화센터를 건립했다. 소창 체험관, 구세 의원, 조양 방직과 연계한 옛 강화읍 소창 거리를 조성하여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사람들로 북적이길 기대하고 있다.

‘남산마을 재생사업’올해 마무리

남산마을의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 말 마무리 될 계획이다. 에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달빛공원·소규모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 완료될 예정이다.

‘동문안 도시재생사업’2025년까지 사업비 33억 원 투입

강화군에서는 동문안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하던 중 인천시 공모사업인 2023년도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 선정 되었고,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3억 원을 확보해 마을 전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강화산성 4대문 안을 중심으로 한 변화의 물결은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다른 낙후된 원도심 지역인 온수리, 북성리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온수리 복합커뮤니티센터’올해 마무리

온수리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카페, 주차장, 주민활동 공간 등이 마련될 계획이며 현재까지 총 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올해 말 완료될 계획이다.

‘북성1리 생설미 도시재생사업’각종 공모사업 도전

양사면 북성1리 생설미 마을은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개발이 제한돼 있고, 거주민 대부분이 65세 이상의 초고령 마을로 개선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행정안전부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에 대상 마을로 선정되면서 비좁은 마을 안길과 폐가 등을 정비하고 마을 공동 하수시설을 갖추는 등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강화군은 원도심 이외의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취약지역 개조사업 및 주택 개량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대상지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읍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강화군 전역으로 각종 공모사업을 확대해가고있다. 군에서도 도시재생이라는 명확한 목표로 주민 생활 속에 스며드는 비전과 미래를 제시할 것이며 강화군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최백하 기자

유천호 군수, 지휘하에 일사분란 총력대응 "마니산 산불 주불 진화 완료"



마니산 산불 현장 브리핑



마니산 산불 현장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어제(26일) 오후 2시 44분 마니산에서 난 산불의 주불진화를 오늘(27일) 오전 8시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강화군 공무원 등을 집중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고 있으며, 유천호 군수 지휘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마니산 산불 진압은 완료돼 가고 있다.

현재까지 산림청 헬기 11대와 강화군 공무원 등의 진화인력이 1,500여명이 투입됐으며, 야간에도 산불진화에 정예화된 강화군 산불전문진화대 등 전문인력 240여명과 장비 27대를 동원하는 등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이다.

이번 산불로 산림 22ha가 소실됐으나, 산림청, 소방, 경찰, 의용소방대, 군부대 등 유관기관 및 주민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 없이 마무리 됐다.

현장통합지휘본부장인 유천호 강화군수는 “산불진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주불이 진화됐다.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산불진화를 위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1

유천호 군수, 확대 간부회의 주재 ‘산불진화 전 직원 노고 치하’



확대 간부회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부군수, 국·과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유천호 군수는 회의에 앞서 “지난 일요일 발생한 마니산 산불과 관련하여 휴일도 반납하고 비상근무명령에 즉각 응소해 산불 진화에 적극 노력해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업사업장 순회점검 ▲식목일 행사 추진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조기 검진 ▲영농철 농기계은행 임대현황 등 군정 현안을 살피며 회의를 주재했다.

유천호 군수는 “주민편의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과 양자 살군수를 활용한 농업, 축사 악취제거 등에 이용방법을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1

- 최벽하 기자



마니산 산불현장 직원소집

사업비 23억9천만원,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강화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본격추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치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주택·공공·상업(산업) 건물이 혼재된 지역과 마을에 지역별 특성에 맞춰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3억 9천만 원을 확보했다.

지속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해 총 967개소에 구축을 완료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컨소시엄 협약 체결했다. 또한, 연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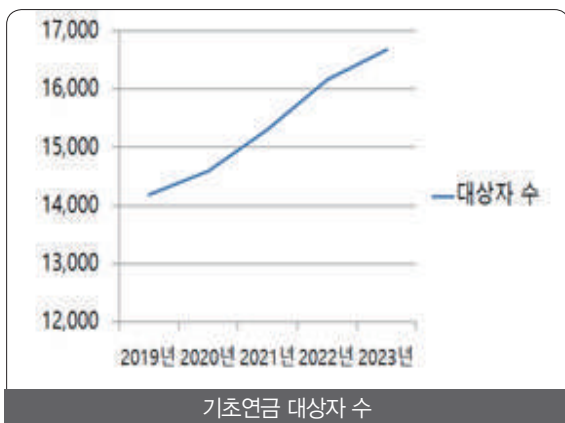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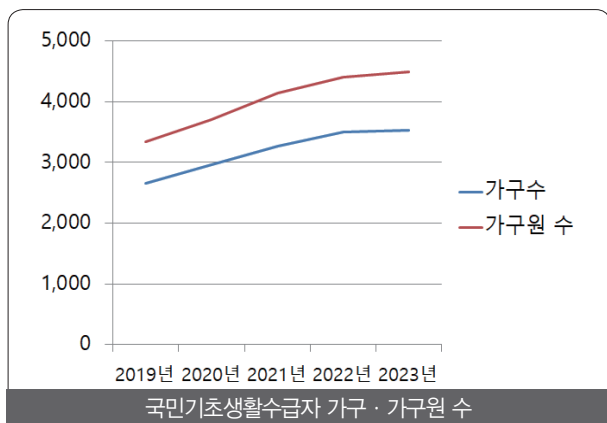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166개소에 태양광 1,201kW, 태양열 250㎡, 지열 157.5kW의 자가소비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할 계획이며, 2024년 공모사업에도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1,600MWh의 전기와 75MJ의 열에너지를 생산하여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전기 및 난방요금 절감 등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풍요로운 주민복지 실현을 위한 공정한 복지 추진

“복지수혜자 적극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로 공정한 사회보장급여 추진에 최선



있던 수급자가 복지급여선정 기준완화에 따라 868가구 1,123명으로 25%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의 경우, 관련대상자는 2023년 2월 현재, 16,682명이며,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수급률은 67%이다. 이는 2019년 14,184명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전년 대비 선정 기준액이 12.2% 증가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맞춤형 복지 지원과 적절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공정한 복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은 풍요로운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 급여 신청자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자격 중지 등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이 소득과 재산의 변동 및 복지 급여기준의 완화로 수급이 가능해진 경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권리 구제를 실현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을 포함해 약 13종이 있다. 이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수령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23년 2월 현재 3,528가구 4,490명으로 인구수 대비 수급률이 6.45%이다. 이는 2019년 2,660가구 3,367명이

이 외에 차상위계층, 한 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초·중·고 교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현재 3,061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수급자 선정이 어려운 대상자 중 디딤돌 안정 소득(구)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가능한지 추가 검토하는 등 연 8회 정기 확인 조사 및 수시 조사를 통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여 복지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 완화 등으로 복지 급여에 대한 군민의 기대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정 기준이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라며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적절한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화군의의회, 제285회 임시회 개최



285회 임시회



285회 임시회

강화군 의회(의장 박승한)는 20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오는 31일까지 12일간 회기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견」 의원 발의 2건을 포함한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은 20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21일 실시하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견」을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22일부터 30일까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31일에는 제2차 본 회의를 열어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봄철 각종 축제로 예상되는 많은 관광객의 방문과 해빙기에 예상되는 안전사고 및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 예방과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

강화군의의회, 한승희·박흥열·오현식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지방의정봉사상수상

강화군의의회 한승희, 박흥열, 오현식 의원이 29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및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 기초의원과 인천광역시 관내 기초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타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한승희 의원은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정

봉사상을 받았다. 제9대 강화군의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방자치 발전 및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현장중심의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기대와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강화군의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고 있다.

박흥열 의원은 제9대 강화군의의회 의원으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학교란 격언처럼 지역의 꿈나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방간담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교육의 현황 등을 직접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오현식 의원은 재선 군의원으로서 제8,9대 강화군의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특유의 성실함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의 작은 고충에도 헌신을 다해 고충해결에 노력을 다해 원활하면서도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나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수상을 한 의원 모두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드린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1 - 최백하 기자

강화군, 치매환자 실종 '사전 차단' GPS, 지문등록, 배회인식표 무료 지원



배회인식표, 지문등록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치매환자 실종 방지를 위해 GPS(위치추적기)보급 및 지문인식등록 등 실종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군은 오는 12월까지 치매환자에게 ▲GPS(위치추적기)보급 ▲지문인식등록 ▲배회인식표를 무료로 지원한다.

배회인식표는 만 60세 이상에게만 지원되며, 치매환자 뿐 아니라 치매로 의심되거나 실종에 대비하고 싶은 어르신은 지원받을 수 있다.

GPS(위치추적기)는 치매환자의 현재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시계다. 치매환자가 일정 거리를 벗어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 문자를 전송되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며, 낙상 등 위급 시 긴급호출(SOS)도 가능하다. 배회인식표에는 이름,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의 정보가 담겨있어 옷, 신발 등에 부착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북부, 남부 인지건강센터에서 치매환자의 실종 및 배회행동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종예방사업을 확대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며, “치매가 있어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생활을 하면서 치매 진행도 늦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

문의 ▶ 치매안심센터 ☎ 032-930-4092

강화군, 치매 조기 선별 '찾아가는 인지건강 서비스'



찾아가는 인지건강 서비스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찾아가는 인지건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인지건강 서비스'는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 등 검사 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이를 꺼려 해 검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인지 선별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치매 조기 발견과 인식개선 위해 관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이

편견 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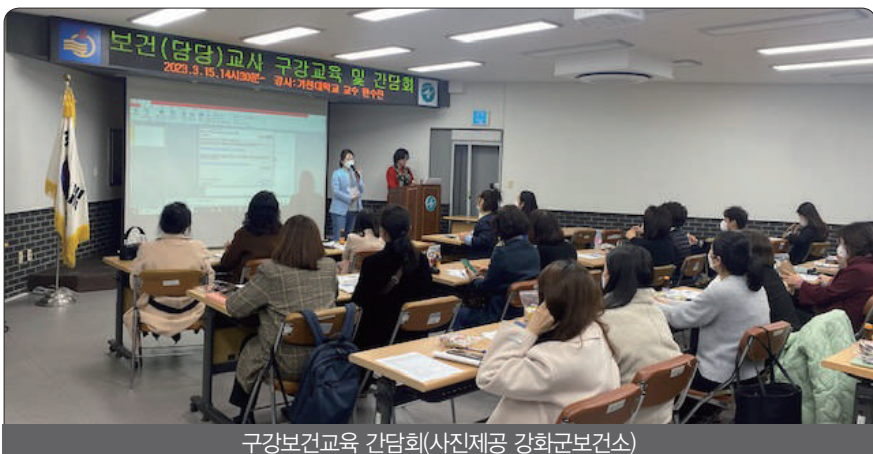
지난 14일 그랑드빌(갯갯6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인지건강 서비스'를 진행한다. 조기에 발견된 치매는 약물 복용과 관리로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시킬 수 있어 주기적인 인지 선별검사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군은 검사 결과에 따라 정밀진단 검사 및 감별검사를 지원하고 치매로 진단받을 경우 치매치료관리비(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1:1 맞춤형 사례관리, 위치 추적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천호 군수는 “치매인지 선별검사를 원해도 이동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라며,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 만큼 이번 방문 검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1]

문의 ▶ 강화군 치매안심센터 ☎ 032) 930-4027
(방문 희망 경로당 상시 모집할 예정)

강화군보건소, 보건교사 구강보건교육 간담회 실시



구강보건교육 간담회(사진제공 강화군보건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5일 교육지원청과 초·중·고등학교 보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구강관리의 필요성, 치면세균막의 위해성과 제거방법,

현명한 구강관리법 등 학생들의 자발적 구강건강관리 지도 능력을 배양을 위해 '아동·청소년 구강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4월부터는 학생들의 구강관리를 위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사업 뿐만 아니라 구강버스 학교방문을 통한 구강검진 및 예방치료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점심식사 후 칫솔질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구강관리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유천호 군수는 “구강보건교육과 관리습관은 교육기관과 가정의 연계 지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며 “학생들의 바른 구강건강 습관 형성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 - 최백하 기자

농기계은행,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사전점검 완료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점검(사진제공 농기계은행)

현재 농기계은행은 농업기술센터 본점을 비롯하여 북부(송해면), 남부(화도면), 교동, 삼산분점까지 총 5곳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기, 경운기 등 농기계 128종 943대를 보유하고 있다.

군은 올해도 농기계은행의 장비 구입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8종 41대 구입 할 예정이다.

특히, 농기계은행 남부분점에 색채선별기를 이용한 고품질 콩선별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무한’, ‘감동’, ‘만족’이라는 농기계은행의 슬로건에 맞추어 농기계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영농철에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기계팀 ☎ 032) 930-4175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은행 임대장비사전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농기계은행 직원들은 임대장비를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정비에 구슬땀을 흘렸다.

봄철 ‘월동모기 유충구제 사업’ 집중방역소독 실시



모기 유충 구제제를 통한 방역

여름철 모기 발생빈도는 월동 모기의 번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모기 유충 한 마리 방제 시 성충 500마리의 박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군은 특별 방역반 1개조를 편성해 유충의 주요 서식처인 우수관, 대형건물 정화조, 공중화장실, 맨홀 등 총 443개소에 유충 구제제 투여 등 강력한 방역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모기는 말라리아, 일본뇌염, 뎅기열, 황열 등의 감염병을 일으키는 매개 해충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우리 군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인 만큼 해빙기 집중 방역으로 여름철 모기발생을 억제시키고,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 예방은 물론 군민들을 위한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내 모기 유충 및 성충 모기 서식처(폐타이어, 웅덩이 고인 물) 발견 시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 032) 930-4372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1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월동모기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한다. ‘월동모기 유충구제 사업’은 여름철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집중방역으로 월동 모기 번식을 막기 위한 사업이다.

강화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민간감시원 운영



강화군청

먼지 민감 감시원’을 채용해 12월까지 운영한다.

최근 영농철을 맞이하여 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행위와 생활 쓰레기 소각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신고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감시원 운영을 통해 불법소각 현장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서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은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 구분하여 읍·면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불법소각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며,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부는 요즘 불법 소각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자제 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불법소각 현장 계도 및 단속업무를 위해 ‘미세먼지 민간 감시원’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환경위생과 1명, 읍·면별 2명씩 총 25명의 ‘미세

강화군 이장단 체육대회 “화합 한마당” 개최



강화군이장단 체육대회

강화군 이장단(이장협의회장 김상배) 체육대회가 지난 23일 강화읍 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화군 이장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체육대회 관내 이장 187여 명을 비롯해 유천호 군수, 배준영 국회의원 등 내빈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 봉사에 솔선수범해 온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장단 체육대회는 강화공설운동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나들길 걷기와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했다.

이어서 각 읍·면 대표들의 노래자랑도 펼쳐져 이장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돈독한 시간을 가졌다.

김상배 강화군 이장협의회장은 “오늘 행사가 이장들이 서로 화합하고 사기도 진작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즐겁게 웃으며 참여하는 이장들을 보니 평소 모이기 힘들었던 여러 마을 이장들 간에 교류의 장이 성공적으로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유천호 군수는 “강화 관내 곳곳에서 주민들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이장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체육대회가 13개 읍·면 이장들이 단합하고 그동안 힘든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개관1주년』 기념행사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개관1주년 기념행사

지난 21일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 개관1주년』기념행사를 기독교 역사기념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군의회 의장 및 대한성공회

김성수 대주교, 성공회대 김경문 총장 및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강화 기독교 역사기념관은 강화 기독교 문화유산과 연계한 성지순례길 체험, 어린이 청소년 체험학습, 교육연구, 전시기획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강화 기독교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행사는 1부 기념행사에 이어 2부 개관 1주년 축하를 위한 중부연회 합창단 등 5개 팀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강화기독교 역사기념관이 개관1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1년간 기념관을 위해 봉사해 주신 최훈철 이사장님을 비롯한 목회자 등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며, “앞으로도 강화기독교 문화유산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통해 명실상부한 수도권 제일의 성지순례거점 관광 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제20,21대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

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명진컨벤션웨딩부페에서 제20,21대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배준영 국회의원,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박용철 인천광역시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및 여성단체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제20대 송미영 회장은 “그동안 협조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강화군여성단체협의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가주부모임 강화군연합회의 김미경 회장이 제2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미경 회장은 양도면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 남부농협 여성대학 학생장을 역임하며 강화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강화군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여성단체 상호간의 협조와 친선, 여성단체의 발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 및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1986년 설립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성평등 문화구현사업, 건강가정 육성사업, 사회복지증진사업, 환경보호운동 등의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김미경 신임 회장은 “많은 분들의 기대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많은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들고자 한다”라며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하는 여성 리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 최백하 기자

강화 군민이라면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 강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농기계 · 자전거”



군민안전보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각종 농기계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고,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농기계와 자전거 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군에 주민등록이 둔 사람이면(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역은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후유장애 발생 시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3%~100%의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10만 원부터 8주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처리지원금 등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총괄과(032-930-3494)와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강화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민 체감 보험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고위험 시기’ 집중 관리



경로당 자살예방교육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봄철 자살 고위험시기(3~5월)를 맞아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군은 대중교통, 학원과 같이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 자살다발지역 및 자살고위험시기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자살예방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살 고위험 시기에 맞춰 ▲군민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유관 기관 간담회 ▲농약안전보관함 관리 모니터링 ▲번개탄 판매개선 ▲SNS 활용 도움기관 정보 제공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봄철은 자살률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세계 공통된 현상으로 일조량 증가, 불면증, 구직시기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응급개입, 상담, 치료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여러 사정으로 불안, 우울 등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꼭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문적 세무상담,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 운영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5일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고민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군민들을 위해 전문적인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강화군 소회의실에서 마을 세무사와 납세자 보호관이 함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 개인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상담실 이용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복잡한 세금 신고 납부에 대하여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만족해했다.

유천호 군수는 “마을 세무사와 협업하여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군민들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최백하기자

올 봄 꽃놀이, 강화·인천에서 즐겨볼까?

3월 마지막 주부터 개화, 4월 초 만개 ... 진달래·개나리·벚꽃 순
4월 8~9일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15~23일 강화군 고려산 진달래 축제 개최



대공원 벚꽃

코로나19로 길었던 단절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마주하는 봄. 올해 봄을 맞는 마음은 더 부산하다.

개화부터 만개까지 고작 일주일, 자칫 꽃놀이 철을 놓칠까하는 조바심에 더해 들쭉날쭉한 기온으로 개화시기의 예측이 어려워니 마음은 더 안달복달이다.

기상전문 기업 웨더아이에 따르면 올해 인천의 봄꽃 개화시기는 평년보다 4일~10일 정도 빠르다. 개화시기가 평년보다 10일 정도 빨라진 진달래(3월 25일)가 가장 먼저 꽃망울을 틔우고 개나리(3월 28일)와 벚(3월 28일)이 그 뒤를 이을 전망이다. 3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봄 꽃 개화시기에 맞춰 인천의 주요 봄 꽃놀이 명소를 소개한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오래 사랑받은 꽃 진달래

고려산 진달래 축제 4월15~23일 개최...해명·가현·청량산에서도 만날 수 있어

화전도 구워먹고 입에 물고 꿀을 쪽쪽 빨아 먹기도 했다는 진달래, 봄에 피는 꽃 중 한국인들에게 가장 오래 사랑받았던 꽃이 아닐까?

인천의 대표적 진달래 명소는 강화 고려산(436m)이다. 고려산 진달래 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봄꽃 축제로, 산 중턱부터 정상에 펼쳐진 그 연분홍빛 꽃 물결을 찾아 매년 전국에서 4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는다.

북쪽 산등성이를 따라 400m가 넘는 고지대에 형성돼 있는 진달래 군락을 보려면 정상부근까지 약 1~2시간 올라가야 한다. 코로나 19로 3년간 중단됐던 진달래 축제가 4월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며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인파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진달래를 즐기고 싶다면 석모도 해명산을 추천한다. 진달래 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산벚꽃나무와 다양한 봄꽃이 가득하고 서해바다까지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전득이 고개에 주차하고 구름다리를 건너 산길에 오르면 초보자도 수월한 능선을 만난다. 구름다리를 건너 해명산 정상(편도 1.8km, 왕복 3.6km)까지 다녀오는 데 쉬엄쉬엄 3시간이면 충분하다.


이 밖에 서구 가현산(215m)과 연수구 청량산(172m)에서도 진달래를 볼 수 있다. 잘 조성된 트래킹 코스를 따라 진달래를 비롯해 조각보 처럼 산을 덮은 매화, 목화, 개나리, 짙레꽃 등을 만날 수도 있다.

대표 명소부터 주변 꽃길, 섬 길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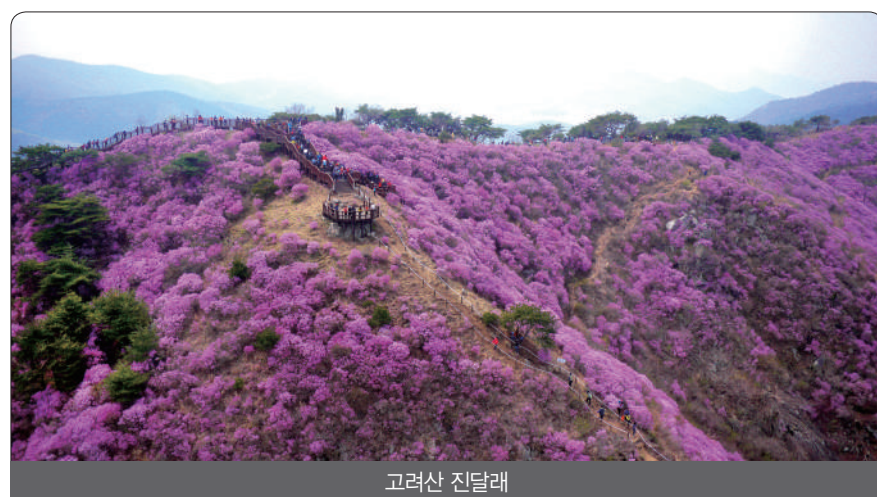
인천 곳곳서 벚꽃으로 봄심 자극 / 인천대공원 4월 8~9일 벚꽃축제 개최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 자유공원은 인천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다. 40년 이상의 왕벚나무 800여 그루가 약 1.2km에 걸쳐 줄지어 선 인천대공원 일원에서는 다음달 8일과 9일 벚꽃축제가 펼쳐진다. 축제공연과 불꽃쇼, 버스킹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으며 야간 관람객을 위한 포토존과 주변 경관조명도 설치된다.

월미공원과 자유공원에서는 역사와 꽃놀이를 함께 할 수 있다. 특히 바다의 영향으로 도심이나 자유공원보다 7~10일정도 늦게 꽃을 피우는 월미공원은 주변의 전통정원과 월미문화관, 이민사 박물관 관람 일정을 포함해 느즈막히 시간을 내서 둘러보기에 좋다.

영종도에 위치한 '세계평화의 숲 건강백년길'은 걷기코스 약 3.5km로 산책길에 전부 벚꽃이 피어 있으며 탁 트인 바다와 함께 울창한 숲 속 산책과 생태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또한 매년 35만 여명이 방문하는 트래킹 명소, 장봉도에서는 4월 16일 장봉도 벚꽃맞이 가족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약 4km 구간의 벚꽃길 걷기를 포함해 풍물공연, 먹거리장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돼 있다. 

- 권주형 기자




고려산 진달래

독거어르신 깨끗한 잠자리에서 꿀잠 주무세요

길상면, 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불 세탁 봉사 활동 펼쳐

강화군 길상면 '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길사모)에서 독거어르신 11가정에 이불 세탁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는 활동 중 하나로 어르신이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불을 수거해 세탁 후 전달했다. 한 어르신 댁에는 낡은 이불을 교체해 드리기도 했다.

염금숙 길사모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섬김 봉사를 실천할 수 있어 뿌듯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길사모 이불세탁 봉사

선원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찬우물 환경정화 운동 전개

바르게 살기 운동 강화군협의회 선원면위원회(위원장 조경재)가 지난 7일 찬우물 약수터 인근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찬우물 약수터는 강화 나들길 14코스의 핵심 명소로 주민과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이다. 이에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원들이 약수터 인근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낙엽을 제거하는 등 환경 정비에 나섰다.

이날 조경재 위원장은 "봄을 맞아 찬우물 약수터를 방문하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쾌적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찬우물 약수터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선원면 바르게살기위원회, 찬우물 환경정화 운동

양사면, 농촌지도자회 청정 농촌을 위한 환경정화 실시


강화군 양사면 농촌지도자회(회장 김길용)가 지난 24일 덕하천 구간에서 하천·하구로 유입된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도자 회원 26명이 합심해 방치된 농촌 폐비닐과 점적 호스 등을 수거했다.

김길용 회장은 "모내기철을 앞두고 청정 농촌을 위해 회원들이 힘을 모았다."며 "깨끗한 환경에서 질 좋은 농산물이 나는 만큼 농촌 환경 보전에 모두가 힘써야한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양사면 농촌지도자회 환경정화



침수방지시설(차수판) 무상 설치사업 안내

- 대 상: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되는 관내(반)지하 주택, 지하상가 등
- 설치기간: 2023년 3월 ~ 5월
- 침수방지시설: 비가림막, 차수판(물막이판)
- 대상: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지하주택
- 규격: 높이 40~80cm의 스테인리스 또는 알루미늄 재질 조립식 수동 장치
- ※설치 후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있음
- ※설치 예시는 군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 통해 확인 가능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 청 서: 강화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방법: 신청서 및 건물주 동의서 작성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기간: 예산 물량 확보 시 까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마감 예정)



강화군청 안전총괄과 ☎930-3497

선원면, 자유총연맹 선행천 환경정화 활동 전개

강화군 한국자유총연맹 선원면분회(회장 이수정)가 지난 27일 선원면 선행천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선행천 일대는 하천변을 따라 산책코스가 잘 마련되어 있어 주민들이 즐겨 찾는 쉼터이다. 봄을 맞아 방문객들이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전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정화에 나선 것이다.

행사를 준비한 이수정 분회장은 “방문객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을 자연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시은 선원면장은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선행천이 더욱 깨끗해졌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선원면의 자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선원면 자유총연맹 환경정화

강화군가족센터, 다양한 가정에 체계적 영양관리 지원



가족센터 업무협약식

강화군가족센터는 지난 22일 강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지역 사회복지증진 및 협력 관계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인적·지적·물리적 자원을 교류하여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 뿐 아니라 한부모, 맞벌이 등 다양한 가정에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위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센터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 최백하 기자

2023. 03. 15. 제작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실직·폐업, 중한질병·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갑자기 곤란해졌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129로 연락주세요!

생계비부터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신속하게 도움 받으세요!

지원 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상담)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상세사항은 129문의)

지원 내용

- 생계(1인 가구 기준 62만원), 의료(300만원 한도), 주거(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원 한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해산·장제비 등

강화군 청년 면접지원

면접도 탈출루션

면접복대여, 면접메이크업·헤어 무료지원

지원내용

면접복 무료대여, 면접스타일링(메이크업·헤어) 무료지원
면접수당(센터 상담실을 통한 면접시 이음카드 5만원권 증정)

지원대상

만19세~39세 구직 청년 (아래 조건에 1개이상 해당되는자)

-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주민등록 된 청년
- 신청일 현재 강화에 거소를 둔 청년
-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
- 관내 기업 면접 예정자

신청기간

2023. 2. ~ 12. (예산소진시 종료)

신청방법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홈페이지
(www.ganghwajob.kr)

문의사항

강화군 창업일자리센터 032-934-3098/3088

기고

이경수

삼국시대와 불교 전래



보문사 향나무 동자승 인형

삼국은 어느 나라인가요?

“시작부터 뭐 이런 싱거운 질문을 하는가, 고구려·백제·신라지.” 맞습니다. 우리는 삼국을 ‘고구려·백제·신라’라고 말합니다. ‘백제·고구려·신라’나 ‘신라·백제·고구려’라고 하는 이는 별로 없습니다. ‘고구려·백제·신라’라고 말하는 것은 은연중에 고구려를 삼국 가운데 최고로 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넓다는 만주를 호령하던 고구려의 기상을 우리는 여전히 동경합니다.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건국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당연히, 고구려!”가 아닙니다. 신라인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세워졌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됐습니다. 대략 20년 간격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삼국사기》를 쓴 이가 김부식이고 그는 경주김씨이고 또 신라를 정통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신라가 제일 먼저 세워진 것으로 썼겠지.” 그렇지 않아요. 고구려를 중시했던 이승휴가 쓴 《제왕운기》에도 삼국 중 신라가 가장 일찍 건국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삼국 가운데 제일 국력이 강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번에는 고구려가 답이 될 겁니다. 하지만 고구려가 항상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달랐습니다. 백제가 고구려를 능가할 때가 있었고 신라가 고구려를 압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최후의 승자는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입니다.

그렇다면, 강화는 삼국시대에 어느 나라 영토였을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예, 모두 정답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세요. 대략 4세기부터 삼국이 크게 충돌합니다. 이들이 저마다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다투던 곳이 ‘한강 유역’이라고 교과서는 말합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한 나라가 삼국 중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강화는 한강 유역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강화를 확보한 나라가 최강국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기 300년대, 그러니까 4세기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백제입니다. 중국 요서 지역까지 ‘진출’하여 백제 영역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당시 임금이 근초고왕이지요. 근초고왕은 고구려 평양성에도 쳐들어가 승리합니다. 이때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합니다. 그만큼 백제가 강했습니다. 4세기까지 강화는 백제 땅이었습니다. 이때 강화를 갑비고차(甲比古次)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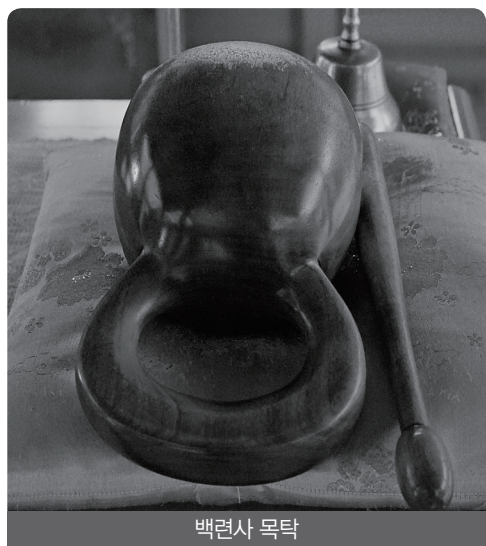
5세기는 그야말로 고구려의 시대입니다.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활동한 때입니다. 백제와 신라는 쪼그라듭니다. 이때 강화는 고구려 영토가 됩니다. 고구려 당시 강화는 혈구(穴口)로 불렸습니다. 지금도 ‘혈구’라는 지명이 살아 있지요? 그렇습니다. 혈구산!

광개토왕은 주로 북방 지역으로 영토를 늘렸습니다만, 남쪽으로도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군을 동원하기도 했지요. 당시 뜨거웠던 전투지가 관미성(關彌城)입니다. 지키려는 백제도, 빼앗으려는 고구려도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삼국사기》는 광개토왕이 392년 10월에 “백제 관미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 성은 사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바닷물이 둘러싸고 있어 왕이 군사를 일곱 길로 나누어 20일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라고 썼습니다. 고구려에 크게 당한 백제, 그래도 관미성만은 꼭 되찾으려고 합니다. 393년에 백제 아신왕이 진무라는 이름의 장군에게 명합니다.



전등사 뜨락



백련사 목탁

“관미성은 우리나라 북쪽 변경의 요새이다. 그 땅이 지금은 고구려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것을 과인은 애통해 하니, 그대는 응당 이 점에 마음을 기울여, 이 땅을 빼앗긴 치욕을 갚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진무가 군사 1만 명을 이끌고 관미성을 쳤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백

제는 관미성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관미성이 지금 어디인지 어느 사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몇 곳을 추정합니다. 파주 오두산성, 예성강 하구, 개성 주변, 개풍군 백마산성이 말해지고 또 강화 하점면 봉천산, 교동도 화개산도 언급됩니다. 강화 본섬 전체를 관미성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미성이 “사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바닷물이 둘러싸고” 있다는 《삼국사기》 기록으로 볼 때 강화 지역에 관미성이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서 지나”

그러게요. 이제 고구려가 지기 시작합니다. 6세기는 고구려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신라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라는 질풍노도를 견뎌내지 못하고 위축됩니다. 신라 진흥왕이 드디어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강화는 신라 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화는 대략 4세기까지 백제, 5세기에 고구려, 6세기부터 신라의 영토였습니다. 갑비고차, 혈구로 불렸던 강화의 지명이 통일신라 때는 해구(海口)가 됩니다.

그러면 강화가 강화로 불린 건 도대체 언제부터인 거야?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고려 초에 처음으로 강화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왜 강화(江華)라고 했는지, ‘강화’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이런저런 말들이 퍼져있지만, 그냥 추정이에요. 명확한 근거가 찾아지지 않습니다.

〈현존 사찰 창건 시기〉

사찰명	창건 시기
전등사	고구려 소수림왕 11년(381)
보문사	신라 선덕여왕 4년(635)
정수사	신라 선덕여왕 8년(639)
청련사, 백련사, 적석사	고구려 장수왕 4년(416)

삼국이 국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펼쳤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불교 공인입니다.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고 백성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데 크게 기여했던 종교입니다. 강화는 다른 지역보다 더 일찍 불교가 수용됐을 겁니다. 지금 강화의 사찰들이 삼국시대에 이미 창건된 것으로 전합니다.

전등사 창건 연대 381년! 《전등본말사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전등사를 ‘천년고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1600년이 넘는 고찰입니다. 《전등본말사지》 기록에 따르면, 현존하는 전국 사찰 가운데 창건 연대가 가장 앞서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사찰이 바로 전등사입니다.

청련사 등의 창건 전설은 너무 거창하지 않아서 더 정겹게 느껴집니다.

오색 연꽃 던져 떨어진 곳에 다섯 절을 지었다는 유명한 전설이 여러 사료에 전하는데, 그 내용이 적석사비에도 실려있습니다. 적석사비는 고려산 적석사 주차장 옆, 비각 안에 있어요. 1714년(숙종 40)에 세운 이 비석의 공식 이름은 ‘적석사 사적비(積石寺 事蹟碑)’입니다. 《강화금석문집》(강화문화원, 2006)에 실린 번역본 일부를 옮깁니다.

옛날 천축조사가 일찍이 이 산에 주석하면서 절을 창건하고 부처를 받들어 모셨다고 한다. ... 여러 승려가 또 말하기를 “옛날 조사가 주석하던 때에, 다섯 가지 색의 연꽃을 던져 오방의 산기슭에 떨어지니 바로 다섯 연꽃의 땅이었다. 그곳에 모두 절을 짓고 연꽃 색깔에 따라 절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산도 오련산이라 일컫고, 이 절도 적련(赤蓮)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적석사 역사

고려산에서 연꽃을 날린 승려가 천축조사라고 했습니다. 천축조사는 이름이 아니고요, 천축국(인도)의 승려라는 뜻입니다. 고려산의 원래 이름이 오련산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적련사(赤蓮寺)가 나중에 이름을 바꿔 적석사(積石寺)가 되었습니다.

천축조사가 던진 오색 연꽃은 한 연못에 핀 것일까요? 각각 다른 연못에 핀 것일까요?

오랜 세월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은 조금씩 변용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로 기억되기 마련입니다. 정답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한 연못에 다섯 색깔 연꽃이 모두 핀 것으로 말해집니다. 그래서 오련지(五蓮池)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노진이 지은 《강화부지》(1783)에는 다섯 개 연못에 각각 핀 다섯 색깔 연꽃을 천축조사가 따서 하늘에 날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련(五蓮)은 무슨 색깔일까요?

18세기 증엽에 나온 《여지도서 강도부지》와 박헌용이 편찬한 《속수증보강도지》(1932)에 적련, 청련, 백련, 흑련, 황련이 오련이라고 나옵니다. 조금 다른 내용도 전해지기는 합니다만, 오련을 적련, 청련, 백련, 흑련, 황련으로 보는 것이 일종의 정설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구려 때 오련산(고려산)에 세워진 사찰이 적련사(적석사), 청련사, 백련사, 흑련사, 황련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려산에 있는 사찰은 적석사, 백련사, 청련사입니다.

다음 호에서 불교와 강화의 사찰 이야기에 관하여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고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김학준
인천언론인클럽 대의원

2차 세계대전 중 미국과 일본이 벌인 태평양 전쟁 직후 일본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특이한 사진이 공개됐다. 당시 일본 천황 히로히토와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사령관 미국 맥아더 장군이 함께 찍은 것인데, 키가 작은 히로히토는 해사하고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맥아더 옆에 바짝 붙어서 포즈를 취했다. 열은 미소까지 머금어 마치 형제지간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순간 태평양전쟁이 오버랩되었다. 전쟁 중에 75만명에 달하는 일본 병사들이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며 죽어갔다. 그들은 전세가 불리해지면 총검만으로 무장하고 미군에게 돌진하는 이른바 '반자이' 공격을 펼쳤다. 무모함의 절정은 가미카제다. 전쟁 말기에 일본 조종사들은 전투기에 폭탄을 싣고 미국 전함에 충돌하는 자살 공격을 감행해 미군이 혀를 내두르게 했다. 한 미국 병사는 다큐멘터리에서 "일본군은 항복을 모르는 군대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천황 히로히토가 내린 교시와 무관하지 않다. 그는 필리핀 제도와 일본 영토인 사이판, 오키나와, 이오지마 전투 등에서 사지에 몰린 병사들에게 "항복하지 말고 자결하라"고 독려했다. 그랬던 천황은 버젓이 살아남아 맥아더 등 연합군 최고사령부 인사들과 유착했다. 당시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지만 대신들과 군대 수뇌부는 전후 천황제 유지를 놓고 미국과 물밑 협상을 벌였으며, 그 대가로 히로히토는 전범 기소와 왕위 박탈을 면했다. 자리를 지킨 천황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하다. 그는 패전 후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란 '인간선언'으로 면피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역사는 반복된다. 전쟁으로 죽는 병사와 민간인은 헤아릴 수 없지만 정작 전쟁을 일으킨 왕은 대개 살아남아 천수를 누린다. 한 역사학자는 "아무리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있다 해도 왕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전쟁을 쉽게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인 사상자가 20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는 만명을 넘어섰다. 아니러니 하게도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푸틴은 자신의 몸을 지극히 돌보는 스타일이다. 코로나 발생 후 그는 감염을 우려해 오랫동안 격리생활을 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가 장기화되자 러시아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으나, 푸틴 대통령 자신은 다른 나라 정상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예방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정부 관료들과 대부분 화상회의를 진행한 점, 외국 고위 인사가 방문해도 푸틴과 대면할 수 없었던 경우를 그 사례로 들었다. 심지어 미국 정보기관들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된 데에는 그가 2년여의 코로나 기간 동안 극단적인

격리상태에 놓였던 것이 심리적 영향이 주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히틀러는 한술 더떠 건강염려증 환자였다. 6000만명이 희생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건강염려증이라는 희한한 병을 앓았다. 연유는 히틀러가 말단 병사로 참전한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서부전선에서 세균전을 겪은 그는 감염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갖게 됐다. 때문에 히틀러는 집권 후 감기에 걸린 사람과는 절대 면담을 하지 않았고,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손을 철저히 씻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 초기가 연상된다. 또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일정을 중단하고 주치의를 찾았다. 광기 어린 학살자가 자신의 몸은 그토록 아꼈다니 괴이한 일이다.

현대에 들어서도 전쟁은 끊이지 않지만 명분 있고 실리를 챙긴 전쟁은 드물다. 특히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일어난 베트남전쟁은 현대 전쟁사에서 뼈아픈 교훈이 되고 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북베트남(월맹)과 남베트남(월남)이 싸우는 전쟁에 개입해 남베트남을 지원했지만 북베트남의 게릴라전을 견디지 못하고 전쟁 개입 8년만에 철수했다. 미국 역사상 첫 패배였다. 미군은 첨단 무기를 대량 투입했음에도 10만여명이 전사했다.

하지만 베트남을 통일한 호찌민은 개혁개방정책을 펴 미국과 수교를 맺고 급속도로 친밀해졌다. 지금도 베트남은 미국의 대단한 우방이다. 베트남전쟁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미국의 전쟁사학자는 베트남전쟁을 가리켜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적을 만나 잘못된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혹평했다. 전쟁은 민초들의 피와 살로 치러진다. 위정자들은 정의를 가장해 전쟁을 일으킨 뒤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지만, 민초들에게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



강화군, 헬스케어 경로당 구축 사업 '착착 진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건강관리 플랫폼 헬스케어 경로당 구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키오스크, 혈압계, 혈당계, 스마트TV 등을 설치해 어르신들의 지속 가능한 건강 및 여가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헬스케어 경로당 구축 사업은 인천시 관내 가장 높은 노령인구 비율, 코로나19로 인한 어르신 고립감 증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IOT 장비 설치를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측정된 건강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번 사업은 읍·면 경로당 37개소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인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2개소를 포함 총 39개소가 대상이다.

아울러 헬스케어 경로당 운영을 위한 헬스케어 매니저 11명을 모집했으며, 4월 중 관계 기관 및 노인회장, 사무장을 대상으로 한 키오스크 및 IOT헬스기기 교육도 진행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어르신 의료 복지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헬스케어 스마트TV



헬스케어장비(1)



헬스케어장비설치사진_전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

'야호' 오늘은 봄나들이 영화보러 가는 날~!

강화군 노인복지관은 '문화의 달'을 기념해 지난 21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4회에 걸쳐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한다고 밝혔다. '멍멍이'라는 가족영화를 약 50여 개소 200여 명의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관람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적 혜택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 관람을 기획한 윤심 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어르신들 간의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문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외부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 최백하 기자



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과 함께하는 '문화의 달' 영화관람
상영날짜 3월 / 21(화), 23(목), 28일(수), 31(금)
행복센터 프로그램 개강



2023 한방 가정방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보건(지)소 전문인력이 가정방문해 한방 건강 관리를 제공합니다!

- 대상 :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 200명
*장애인,수급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우선 선정
- 내용 : 한의과 진료, 침술,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 신청방법 : 전화 신청 (강화군 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보건(지)소 담당자 상담 후 결정

주소지	보건(지)소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지	보건(지)소 담당자 전화번호
강화읍	930-4092	하점면	930-3544
선원면	930-3538	양사면	932-5506
불은면	930-3539	송해면	930-3546
길상면	930-3540	교동면	930-3547
화도면	930-3541	삼산면	932-3020
양도면	930-3542	주문도	930-3549
내가면	930-3543	블음도	930-3550

서해가든



TEL : (032) 933-8210

H.P : 010-5161-9057
010-4736-9057

서 정 애

계좌번호 | 농협 195-02-232050 (예금주 : 서 정 애)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519번지

아구탕 · 찜 추어탕 밴댕이 회무침 잡어탕
꽃게탕 · 찜 동태탕 된장찌개 김치찌개

더 나은 인쇄 · 광고로 보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삼성인쇄광고기획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